

마음 다루기 영원의 철학

세상 속의 신

| 올더스 헉슬리 | 조옥경 옮김 |

그 어떤 분별 속에 빠지지 않고 가리지 않으며 자연으로 남는 것, 그리하여 자연과 함께 일하며 그의 도리를 이루기 위해 사는 삶에 대해 이야기합니다(편 집자 주).



예 수 생애의 양상은, 선불교도 사이에서 널리 알려진 <십우도+牛圖>에서 그 발전을 더듬어볼 수 있는 이상적인 현자의 삶과 근본적으로 비슷하다. 죄 많은 자아를 상징하는 성난 황소를 잡아서 그 방향을 돌려 길들임으로써 검은 황소는 점차 흰 황소로 변화되어간다. 갱생이 많이 진행되면 황소를 잠시 동안 잊어버려 마음, 진여, 근본바탕을 상징하는 아주 둥근 달만이 남는다. 그러나 이것이 최종단계는 아니다. 목동은 마지막으로 황소의 등을 타고 사람들이 사는 세상으로 돌아온다. 이제 그는 자신이 사랑하는 신성한 대상을 스스로와 동일시할 정도로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이 좋아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가 좋아하는 것은 만물의 본성이 좋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술고래, 푸줏간 주인과 친구가 되며 그와 그들 모두는 붓다로 변한다. 그는 무상한 것에 완전히 귀의하며 그런 귀의를 통해 영원한 것을 드러낸다.

그러나 종교적으로 거듭나지 않은 선량한 보통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무상한 것들에 대한 귀의는 열정의 탐닉, 복종하고 즐기는 오락일 뿐이다. 그런 사람들에게 소멸하는 것과 영원한 것이 동일하다고 말하고는 곧바로 그 언급에 단서를 달지 않는다면, 명백하게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사실상 성자에게만 똑같이 때문이다. 소멸하는 것과 영원한 것, 자연과 은총이 완전히 다르고 많은 점에서 양립할 수 없는 것이라고 믿는 행보를 최초로 취하지 않았던 사람이 결국 신성에 도달했다는 기록은 존재하지 않는다. 영성의 길은 언제나 심연 사이에 존재하는 칼날이다. 한쪽에는 거부와 도피의 위험이, 다른 쪽에는 수단이나 상징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는 것들을 받아들이고 즐기는 위험이 존재한다. <십우도>의 마지막에 있는 운문체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¹⁾

오묘함이 다하여 다시 지극하게 통하고

6도六道 속으로 되돌아오니,

모든 티끌 하나까지도 불사佛事요,

곳곳마다 가풍家風이로다.

흰 옥이 진흙 속에서 빛나고

정련된 금이 불 속에서 빛나듯,

무간無間の 길에서 느긋하게 노닐며

대상을 따라隨類 떠돌아다니도다.

여기서는 의지를 훈련하는 것에 주로 관심을 두려고 한다. 의지의 훈련은 철저한 의식의 훈련을 수반해야만 한다. 갑작스럽거나 갑작스럽지 않은 가슴의 변화뿐만 아니라 감각과 지각하는 마음에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 다음은 전면적이면서도 급격한 ‘마음의 변화’, 그리스인들이 ‘메타노이아metanoia’로 불렀던 것을 간단하게 설명하는 내용이다.

인도와 극동 지역의 영원의 철학 관련 내용들이 이 주제를 가장 체계적으로 다루었다. 여기서 규정된 것은 개인의 자아와 브라흐만과 동일한 참자아, 개별 에고와 여래장 혹은 우주심 사이의 의식적인 구별의 과정이었다. 이런 구별은 다소 갑작스럽고 완전한 의식의 ‘격변’과 ‘마음 없는no-mind’ 상태의 실현을 낳았는데, 이것은 에고-원리 ego-principle에 대한 지적이고 인식적인 집착으로부터의 해방으로 묘

1) 실제로 인용된 문장은 중국 송나라 조동종 승려인 자득휘自得暉(1097~1182) 선사 의 〈육우도六牛圖〉 중 마지막 6번째 단계에 대한 설명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진 곽암廓庵 십우도의 10번째 단계인 입전수수入塵垂手에 해당. 소를 길들이는 과정을 통해 깨달음을 설명한 십우도(혹은 심우도尋牛圖)는 사우도·육우도·팔우도·십우도 등 여러 가지 버전과 해석이 존재하며, 그중 곽암의 것과 보명普明의 십우도가 대표적임.

사될 수 있다. 이 ‘마음 없는’ 상태는, 말하자면 평범한 육체적인 인간의 무관심과 구원에 목마른 광신도의 무리하고 지나친 열정 사이의 칼날 위에 존재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조심스레 걸어야 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장 강렬한 각성을 온화한 자기부정의 수동성과 결합시키며, 절대 꺾이지 않는 결의를 성령의 인도에 대한 완벽한 복종과 결합시키는 법을 배워야 한다. “마음으로써 마음을 없애려(無心) 한다면, 도리어 마음이 있게 된다. 다만 침묵으로 계합(契合)할 뿐이요, 모든 생각하여 헤아림이 끊어진다”라고 황벽 선사는 말했다. 달리 표현하면, 분리된 개체로서의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려 애쓰기보다는 그것에 의해 생각이 일어나도록 허용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금강경』에서는 진여를 깨닫고자 노력하는 보살에게 “자아, 개인, 분리된 존재, 영혼이라는 생각이 남아있다면 그는 더 이상 보살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한다. 수피즘의 철학자 알 가잘리²⁾ 또한 지적 겸손함과 온순함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자아가 소멸되었다는 생각은 파나(fana(대체로 선禪의 무심(無心)에 해당하는 용어)에 있는 사람에게 일어나는데 이는 허물이다. 최고의 상태는 소멸도 사라진 것이다.” 아트만-브라흐만이라는 내적 정점에는 황홀경이라는 ‘소멸로부터의 소멸(effacement-from-effacement)’이 있다. 더 포괄적인 소멸로부터의 또 다른 소멸은 내적 정점에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 세상을 통해, 신에 대한 충만하면서 서로 깨어있는 일상의 얇 속에 존재한다.

인간은 태어날 때처럼 실로 가난하면서도 자기 생명의 의지로부

2) 알 가잘리 Abu Hamid Muhammad ibn Muhammad al-Ghazali(1058~1111): 이슬람교의 신학자·율법학자·철학자·신비가. 이슬람 신비주의 Sufism의 가치를 깨닫고 이를 이슬람 교리 체계에 통합시키는 데 공헌함.

터 자유로워야 한다. 영원한 진리로 말하노니, 신의 의지를 충족시키려는 소망을 갖고 있다면, 영원과 신을 조금이라도 갈망한다면, 그대는 실로 가난하지 않은 것이다. 어떤 의도도 갖지 않고, 아무것도 모르며, 어떤 욕구도 없는 자, 그만이 진정 영적으로 가난하다.

에크하르트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음ियो
오직 간택함을 꺼릴 뿐이니
미워하고 사랑하지만 않으면
통연히 명백하리라.

털끝만큼이라도 차이가 있으면
하늘과 땅 사이로 벌어지나니
도가 앞에 나타나길 바라거든
따름과 거슬림을 두지 말라.

어긋남과 따름이 서로 다툼은
이는 마음의 병이 됨이니
현묘한 뜻은 알지 못하고
공연히 생각만 고요히 하려 하도다. (…)

세간의 인연도 따라가지 말고
출세간의 법에도 머물지 말라.
한 가지를 바로 지니면
사라져 저절로 다하리라.

움직임을 그쳐 그침으로 돌아가면
그침이 다시 큰 움직임이 되나니
오직 양변에 머물러 있거니
어찌 한 가지임을 알건가.

한 가지에 통하지 못하면
양쪽 다 공덕을 잃으리니
있음을 버리면 있음에 빠지고
공함을 따르면 공함을 등지느니라. (…)

앞의 공함이 전변함은
모두 망견 때문이니
참 을 구하려 하지 말고
오직 망령된 견해만 설지니라. (…)

둘은 하나로 말미암아 있음이니
하나마저도 지키지 말라.
한 마음이 나지 않으면
만법이 허물없느니라. (…)

눈에 만약 줄음이 없으면
모든 꿈 저절로 없어지고
마음이 다르지 않으면
만법이 한결 같으니라.

한결 같음은 본체가 현묘하여
올연히 인연을 잊어서
만법이 다 현전함에
돌아감이 자연스럽도다. (...)

하나가 곧 일체요
일체가 곧 하나이니
다만 능히 이렇게만 된다면
마치지 못할까 뭘 걱정하랴.

믿는 마음은 둘 아니요
둘 아님이 믿는 마음이니
언어의 길이 끊어져서
과거 · 미래 · 현재가 아니로다.

『신심명』³⁾

지금 그대가 하고 있는 일을 하고, 지금 그대가 고통받고 있는 것을
아파하라. 이 모든 것을 신성하게 행하라. 그대의 가슴 hearts 이외에
변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신의 질서에 따라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을 기꺼이 하는 데에 신성함이 있다.

드 코사드

17세기 프랑스 언어는 7세기 중국인의 언어와는 상당히 다르다. 그
러나 그들이 해준 조언은 근본적으로 비슷하다. 신의 뜻을 따르고, 신
성한 영이 인도하는 대로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이다. 언어는 사실 다

3) 백련선서간행회편, 『신심명 · 증도가 강설』(장경각, 2001)에서 해당 내용 발췌.

어떤 의도도 갖지 않고, 아무것도 모르며
어떤 욕구도 없는 자, 그만이 진정 영적으로 가난하다.

르지만, 이것들은 간택함을 꺼리고 망령된 견해를 쉬며, 꿈이 사라지고 진리가 스스로 명백하도록 눈을 뜨면서, 지극한 도道を 따르는 것과 똑같다.

평범하고 선량하지만 정신적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세상은 대체로 단조롭고(너무 단조로워 그 단조로움을 의식하지 않도록 온갖 종류의 인위적인 ‘오락’을 즐기는 데 한눈을 팔아야 한다), 때로는 짧지만 강력하게 즐거우며, 때때로 혹은 자주 불쾌하고 괴롭기까지 하다. 자신의 영혼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 신을 볼 수 있도록 스스로를 적합하게 만듦으로써 마땅히 세상을 누릴 만한 사람들에게, 세상은 아주 다른 측면을 띤다.

결코 수확되지 않고 심지어 뿌려지지도 않을, 윤기 나는 불멸의 밀알. 그것은 영원에서 영원으로 지속된다고 생각했다. 길거리의 먼지와 돌맹이는 황금만큼이나 소중하다. 첫 번째 문들은 세상의 끝이다. 내가 문들 중 하나를 통해서 처음으로 푸른 나무들을 보았을 때 그것들은 나를 기쁘고 황홀하게 만들었다. 그것들의 달콤함과 희귀한 아름다움으로 내 가슴은 뛰었고, 황홀경에 빠져 흥분하였다. 그것들은 그토록 낯설면서도 근사했다. 사람들! 오, 나이든 사람들은 얼마나 존경

스럽고도 존귀한 피조물인가! 불멸의 케루빔⁴⁾이여! 젊은이들은 눈부게 반짝이는 천사요, 처녀들은 생명력과 아름다움을 갖춘 불가사의의 면서도 청순한 조각들이다! 길거리에서 놀면서 깡충거리는 소년소녀들은 움직이는 보석들이다. 나는 그들이 태어나고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겠다. 모든 것은 그들에게 적합한 자리에서 영원히 거주한다. 영원한 한낮의 빛 속에서 드러나고, 모든 것 뒤에 감추어진 무한한 것이 나타난다. 그것들은 나의 기대에 말을 걸어 내 욕망을 움직인다. 도시는 에덴동산에 서 있는 듯하고 천상에 지어진 것처럼 보인다. 길거리도, 사원도, 사람들도, 그들의 옷과 황금, 은도 나의 것이요, 그들의 빛나는 눈, 맑은 피부, 혈색 좋은 얼굴도 내 것이다. 하늘도, 태양도, 달도, 별도, 그리고 온 세상이 내 것이다. 나는 오직 구경꾼으로서 그것을 즐기고 있다... 야단법석을 떨며 나는 타락했고, 세상의 추잡한 책략들을 배우게 되었다. 이제 내가 배운 것을 모두 버리고 다시 어린 아이처럼 된다면, 신의 나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토머스 트러헌

그러므로 나는 그대에게 또 다른 생각, 더욱 순수하고 영적인 생각을 주겠노라. 천국에서 일체all는 일체 속에 있으며, 일체는 하나이고, 일체는 우리의 것이다.

에크하르트

세상 속에 신이 계시다는 가르침은 중요하고 현실적이며 필연적인

4) 케루빔Cherubim: 구약성경 <창세기>에서 아담과 이브가 추방된 후에 불갈을 들고 에덴(낙원)을 지키는, 사람의 얼굴 또는 짐승의 얼굴에 날개를 가진 무시무시한 초인적 존재. 반면에, 미술에서는 머리카락이나 몸에 날개가 달린 귀엽고 통통한 어린아이 모습의 천사로 묘사.

결론에 도달한다. 자연의 신성함, 그리고 그런 자연의 영리하고 유순한 협력자 대신에 그 지배자가 되려고 지나치게 애쓰는 인간의 사악함과 어리석음이다. 인간 이하의 생명체, 심지어 사물마저도 인간의 목적을 위해 잔혹하게 억압할 것이 아니라 존중과 이해를 갖고 다루어야 한다.

남쪽 바다의 왕을 숙이라 하고, 북쪽 바다의 왕을 흘忽이라 하며, 중앙의 왕은 혼돈混沌이라고 한다. 숙과 흘은 계속 혼돈의 땅에서 회합을 가졌고, 혼돈은 그들을 잘 대접해주었다. 그들은 혼돈의 친절함에 어떻게 보답할 것인지 살펴보다가 “사람은 보고, 듣고, 먹고, 숨쉬기 위한 목적으로 일곱 개 구멍을 갖고 있지만 혼돈은 한 개의 구멍도 없다. 그에게 일곱 개 구멍을 만들어주자.”라고 말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그에게 매일 한 개씩 구멍을 파주었다. 칠일이 지나자 혼돈은 죽고 말았다.

『장자』

이 세련된 희극 우화에서 혼돈은 무위無爲, 즉 비주장 혹은 평정 상태에 있는 자연이다. 숙과 흘은 메마른 초원을 밀밭으로 만들어서 대 자연을 개선시킬 것으로 생각했지만 결국 사막을 만들었던 부지런한 사람들, 공기를 정복했다고 자랑스럽게 선언했지만 문명을 말살했을 을 깨달은 사람들, 지성과 민주주의를 위해 안전한 세상을 만들려는 보편적 교양이 요구하는 신문용지를 제공하기 위해 거대한 숲의 나무를 잘랐지만, 대규모의 파괴와 선정적인 싸구려 잡지, 파시스트·공산주의자·자본주의자·국수주의자들을 선전하는 기관지誌를 얻게 된 부지런한 사람들을 상징하는 살아있는 이미지이다. 간단히 말해, 숙과

홀은 ‘불가피한 진보 Inevitable Progress’를 신봉하는 종말론적 신앙의 헌신자들로서, 그들은 천국이 당신의 바깥과 미래에 있다는 신념을 갖고 있다. 반면에 모든 훌륭한 도교인들처럼 장자(莊子)도 영원의 철학에서 설명하는 인간의 최종 목표에서 벗어나서 분별없는 세속적 목적에 봉사하려고 자연을 괴롭히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의 소망은 자연과 함께 일하며 생리적인 수준에서 영적 수준에 이르기까지 모든 수준에서 개인들이 도(道)를 깨달을 수 있는 물질적·사회적 조건을 만드는 것이었다. (끝) 

· 이 글은 『영원의 철학』에서 발췌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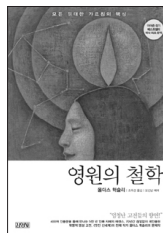
· 이 글은 미내사의 허락 없이 무단 전재나 재배포를 할 수 없습니다.

저자 | **올더스 헉슬리** Aldous Huxley | 영국 태생의 문학가, 비평가, 사상가(1894~1963). 1945년 『영원의 철학』을 통해 그때까지 서구 지성사에 전해오던 ‘영원의 철학’이라는 개념을 핵심적으로 통합하여 종교와 영성에 대한 이해를 혁명적으로 바꿔놓았다. 『멋진 신세계』의 저자이자 말년에 환각제를 통한 의식의 다양한 탐구로도 유명하며, 과학문명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과 미래세계에 대한 디스토피아적 통찰, 다방면에 걸친 백과사전적 지식으로 당대의 천재로 인정받았다. 옥스퍼드 대학 영문학과를 수석 졸업한 후 언론계에서 오래도록 문예비평을 담당하면서 영국 상류층에 대한 날카로운 풍자를 담은 『크롬 옐로 Crome Yellow』, 20세기 관념소설의 대표작인 『연대대위법 Point Counter Point』으로 명성을 얻었고, 이후 『멋진 신세계 Brave New World』, 『시간은 멈추어야 한다 Time Must Have a Stop』, 『원숭이와 본질 Ape and Essence』, 『아일랜드 The Island』 등의 소설과 『인식의 문 The Doors of Perception』 등 다양한 에세이, 시, 평론을 통해 20세기 작가 중 가장 넓고 독창적인 지적 스펙트럼을 선보였다.

역자 | **조옥경** | 통합심리학을 주창한 현대 사상이자 켄 윌버 Ken Wilber의 저서를 한국에서 가장 활발하게 번역하여 소개하고 있는 통합 치유 전문가.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심신통합치유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요가를 바탕으로 몸·마음·영성의 통합적 건강 패러다임을 연구, 지도하고 있다. 고려대학교 심리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문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인도 푸나대학에서 요가심리학을 전공하고 세계적인 아엔가 센터에서 요가 수련 후 미국 히말라야 요가연구소에서 하타요가 지도자 과정을 수료하였다. 『켄 윌버의 통합심리학』,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용기』, 『에덴을 넘어』, 『웰니스를 위한 비니요가』, 『마음챙김을 위한 요가』 등을 번역했다.

영원의 철학 : 모든 위대한 가르침의 핵심

올더스 헉슬리 지음 | 조옥경 옮김 | 출판사 김영사 | 정가 19,800원



세계의 위대한 종교들,
그 신비주의 사상가들로부터 이끌어낸 궁극의 의식 탐구서!

16세기 이탈리아 구약성경학자 아고스티노 스테우코가 자신의 저서에서 처음으로 언급한 표현인 ‘영원의 철학’은 ‘모든 위대한 종교의 본질적이고 공통된 핵심 진리’로, 세계 대부분의 종교적 전통들이 공유하고 있는 세계관·인간관·윤리관을 의미한다. 20세기 올더스 헉슬리의 『영원의 철학』에 의해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지면서 하나의 고유명사로 자리 잡았다.

지성을 넘어 영성을 추구한 작가 헉슬리는 불교와 힌두교, 그리스도교, 이슬람교 등의 종교적 가르침들을 낱낱이 검토하고, 문학, 철학, 과학, 예술 등 인류의 다양한 정신적 유산을 면밀히 탐구한 후 420여 개의 인용문을 가려 뽑아 해설을 덧붙였다. 이 ‘지혜의 가르침’은 지금도 여전히 신선한 통찰을 던져주며, 진정 변치 않는 무언가에 목마른 이들을 결코 실망시키지 않는다.